

작은 종이에 담긴 세계로의 초대

Charles Ritchie: Welcome to Suburbia

문의 제이슨함 070-4477-7880 jasonhaam.com

제이슨함은 찰스 리치(Charles Ritchie)의 개인전 〈Charles Ritchie: Welcome to Suburbia〉를 개최한다. 작가의 드로잉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1984년도 완성작부터 최근작까지, 작가의 35년 간 작품세계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찰스 리치는 수채물감에서부터 흑연, 펜과 잉크 과슈, 크레용, 석판화 용 크레용, 그리고 목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굉장히 작은 크기의 종이 위에 집약적으로 그려내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성찰과 관찰로 응축된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전시 제목 ‘Charles Ritchie: Welcome to Suburbia’는 말 그대로 갤러리 공간으로의 초대를 의미함과 동시에, 작은 종이에 담겨진 작가의 작품세계로의 초대를 뜻하기도 한다.

리치의 드로잉 작품들 대부분 속에는 작가 본인의 꿈에 대한 단상들이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외부적 요인(exterior)이 되는 일상의 이미지와 내부적 요인(interior)이 되는 리치의 잠재의식이 뒤섞이면서, 그의 작품은 그 자체로 자아성찰을 위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

작품 속 교외 지역의 풍경과 이를 표현하는 섬세한 디테일은 보는 이의 감성을 일깨우며, 언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렇듯 고요한 분위기와 수채물감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흐릿한 채색은, 한편으로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미묘하고도 신비스러운 작품의 느낌과, 섬세한 디테일까지 표현하는 채색기법의 대조는 관람객에게 작품 속 숨겨진 수수께끼를 던지는 듯하다. 전시는 4월 28일까지이다.



01_ Dark Interior with Mirror, 2008-2012 ©Charles Ritchie
02_ Astronomical Chart with Bowl and Fan, 2004-2017 ©Charles Ritchie
03_ Red Fall, 2005-2020 ©Charles Ritchie
04_ Star Map with Five Drawings I, 2012-2017©Charles Ritchie

